



보덕암

‘분단 66주년 북한의 불교문화 유산’ 사진전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8월 10~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분단 66주년 북한의 불교문화 유산’을 주제로 북한사찰 사진전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60여 점의 엄선한 북한사찰 사진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금은 폐사된 장안사·화장사·학림사·현화사·신광사·마하연사·패엽사 등 역사 속의 고찰 명찰들 모습도 포함돼 있다.

# 아~ 보아도 갈 수 없는 곳이야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측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불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신앙 활동은 물론이고 분단 직전 전통사찰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유지돼 왔는지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많았다. 전쟁 직후 북한에서는 한동안 종교 활동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남북 불교가 교류의 양상을 띠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사찰이 운영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가운데는 더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남한 지역도 수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해아려 질 뿐,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북한 지역에도 남한 지역만큼의 사찰이 있어 왔겠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역시 파악되지 않았다. 1530년 간행된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불우조(佛宇條)’에 북한 지방의 사찰은 경기도 33개, 강원도 52개, 황해도 210개, 평안도 201개, 함경도 71개 등 571개의 사찰이 등재돼 있다. 193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0개, 강원도 56개, 황해도 124개, 평안도 87개, 함경도 106개 등 403개로 집계돼 조선시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있었다. 8개의 대본산은 패엽사(貝葉

寺, 황해남도), 성불사(成佛寺, 황해북도), 영명사(永明寺, 평양시), 법흥사(法興寺, 평안남도), 보현사(普賢寺, 평안북도), 유점사(楡岾寺, 강원도), 귀주사(歸州寺, 함경남도), 석왕사(釋王寺, 강원도) 등이다. 이 중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사찰들은 성불사·법흥사·보현사·귀주사 등이며, 패엽사·영명사·유점사·석왕사 등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사되거나 사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알려졌다. 봉은사는 2009~2010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함께 북한 전역에 있는 사찰과 암자, 폐사지 등을 북측의 조선문화보존사를 통해 조사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2011년 <북한의 전통사찰>(양사재)로 출판됐다. 이로써 북한의 현존 사찰 및 암자 수가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59개 전통사찰이 남아있었다.

북한의 전통 사찰은 상당수 국보유적·보존유적 등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우리의 사적(史蹟)과 기념물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상·탱화·탑과 공예 등 각종 사찰문화재의 분류 역시 대체로 남한 측의 그것과 비슷하다. 북한의 지정 불교문화재는 2009년 현재 국보급 문화재 19점, 보물급 문화재 35점, 사적 문화재 4점 등을 포함해서 60점

정도다. 불교건축은 상당수 전통사찰에서 여러 건물들이 옛 모습대로 복원돼 있다. 북한에서는 지정 불교문화재 상당수가 ‘국보급 문화재 제31호 성불사’처럼, 특정 건물 이 아니라 그 건물을 포함해 해당 사찰 전체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보급으로는 박천 심원사 보광전(21호), 보현사 관음전(22호), 연탄 심원사 보광전(23호), 성불사 응진전(31호), 석왕사 응진당(43호) 등, 보물급으로는 천주사 보광전(17호), 월정사 극락보전(28호), 관음사 대웅전(33호) 등이 조선시대 초중기의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불상으로는 고묘상암 마애불(국보급 문화재 제46호)과 삼불암 아미타 삼존불(보물급 문화재 제41호) 등 단 2점만 지정돼 있다. 특히, 평남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에서 발견된 다수의 소조불상(여래좌상 204편, 보살입상 108편)들은 고구려 작품으로 불교미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불탑은 현재 북한에 53기의 석탑이 원형을 지니고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성불사 오층석탑이 국보급 문화재 제32호로 지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약 20점이 국보급·보물급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정양사



용흥사



석왕사



표훈사

■보덕암  
보덕암은 금강군 내금강리 내금강산에 자리한 표훈사의 암자로, 국보 문화유물 제98호다. 고구려 안원왕 때 보덕화상이 창건했으며, 지금의 건물은 1675년에 다시 짓고, 1808년에 중수한 것이다. 법당 건물은 자연 동굴을 이용한 전실(前室) 시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지붕으로 층층이 올렸다. 여기에 암자 뒤로 내금강의 오현봉·정학봉·향로봉 등의 봉우리가 병풍마냥 두르고 있어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정양사 전경  
정양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방광대(放光臺) 중턱에 자리한다.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놓였다고 하여 정양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660년에 창건됐고 고려 태조 왕건이 중창했다. 금강산을 주처로 하는 법기보살이 나타나자 이를 본 태조가 옆드려 절을 했고, 후에 이 자리에 절을 세우고 정양사라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99호다.

■용흥사 대웅전 내부  
용흥사는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 백운산성 안에 자리한다. 일명 성불사라고도

하는데, 고구려 동명왕이 쌓은 백운산성의 동문에서 약 600미터 더 올라가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 1048년 창건됐으며, 1794년 현재의 대웅전과 운하루, 1814년 향로전이 지어졌다. 현재 국보 문화유물 제115호로 지정됐다. 대웅전은 내부의 조각 장식이 화려하다. 불단에는 석가삼존불좌상과 영산회상도가 모셔져 있고, 그 위에 격조가 있으면서도 단정함 담집이 설치돼 있다. 2층으로 된 담집의 위층에는 ‘寂滅宮(적멸궁)’, 아래층에는 ‘普光殿(보광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담집 밑에는 세 마리의 용 조각상이 달려 있는데 화려한 단장과는 대조적으로 위엄 있는 모습이다.

■석왕사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 설봉산 기슭에 자리한다.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 중 하나였고, 현재 국보급 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됐다. 일주문인 조계문은 1783년에 중건한 것이다. 조계문은 좌우에 하나씩 세운 2개의 기둥만으로 커다란 팔각지붕을 받들었지만 매우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높이가 1.2m의 4각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다. 기둥 위 지붕에는 화려한 포작과 공포가 배꼽어져 있고,

여기에 불화와 용, 선녀 등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한 단청을 그려 아주 아름답다.

■표훈사  
표훈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금리 금강산 만폭동 입구에 자리하며, 국보 문화유물 제97호로 지정됐다. 금강산 4대사찰인 유점사·장안사·신계사·표훈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다. 670년에 신라의 능인·신림·표훈이 창건했다. 한때 극락전을 비롯해서 20여 동의 전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반야보전·영산전·명부전·어살각·칠성각·능파루(일명 산영루)·판도방 등과 칠층석탑이 남아 있다.

■금강사 대웅보전 빗받자 별화  
대웅보전 천장은 중도리 바깥쪽은 빗천장으로, 안쪽은 평천장으로 조성됐다. 천장의 장식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황룡을 중심으로 연꽃과 연잎이 화면 가득 장식됐다. 또 연꽃 사이에 불교기물이 헤엄치는 장면을 그려 넣어 연지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표현했고, 그 밖에 구름과 학 같은 동물도 그려 천상의 세계를 상징했다. 대웅보전 내부 불단 위에는 단장 대신 대들보 아래에 연꽃 조각을 달아 보게처럼 처리한 것도 특색이다.